

2 종합

‘누가 쓰느냐’에서 ‘어떻게 쓰느냐’로 공간관리 시스템 오픈

서리수 기자 sooxoosoo@khu.ac.kr

총무관리처가 구축한 공간관리 시스템이 오는 3월 도입을 앞두고 있다. 공간을 개별 소속의 전유물이 아닌 대학의 공적 자원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간관리 시스템 논의는 지난 2022년부터 4년 넘게 이어져 왔다. 김경태 서울캠 총무관리부처장은 “처음 2년 반 동안은 구성원 간 시스템 필요성을 따지고 논의와 구상이 이뤄졌으며, 이후 1년 반 정도 실질적인 구축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축은 2024년 말부터 시작됐다.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 동안은 각 건물과 공간에 대한 기존 정보 수집과 도면 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뤄졌다. 현재는 정식 도입에 앞서 실제 공간 사용 현황과 전산이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안정화 단계다.

공간관리 시스템은 양캠퍼스 공간 정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웹 기반 시스템이다. 건물명과 호실, 면적, 사용 용도, 사용 주체 등 기존에 여러 부서와 자료에 흩어져 있던 공간 정보를 하나로 묶고, 도면과 연동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스템 내 화면에 띄워진 도면에서 특정 호실을 클릭하면 해당 공간의 용도와 사용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공간대여도 가능하다. 다만 모든 공간이 동일하게 개방되지는 않는다. 사용자의 신분이나 목적에 따라

접근 가능한 정보 수준이 달라지는데, 실제 공개 범위와 대여 승인 절차는 호실별 비품 관리, 단과대별 운영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될 계획이다.

공간 배정 원칙을 위한 공간관리 규정도 새로 제정된다. 앞으로는 규정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 공간 배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배정 기준에는 학생 및 교원 수, 연구비 수주 규모, 실제 사용 면적과 기존 면적 등이 포함된다.

김 부처장은 “이전까지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정성적으로 공간 배정이 이뤄져 공간 배정에 어떠한 기준이 있다고 보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정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배정할 것”이라 밝혔다.

한덕영 서울캠 총무관리처장은 “학생과 교원 등 대상별로 공개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사항은 공간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간관리 규정이 제정되면 기준에 맞춰 시스템 도입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식 도입은 오는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식 도입 시에는 ▲단과대별 공간 사용 현황 ▲향후 공간 배정 및 조정 ▲학생 수 ▲교원 수 ▲이용률 등 정량적 지표를 참고할 수 있게 된다. 특정 단과대나 학과에 배정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다른 단과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공간을 개별 소속의 전유물이 아닌 대학의 자원으로 관리하겠다는 셈이다.

스스로 졸업 이루는 선택지 열려 ‘학사학위취득유예제’ 도입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졸업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졸업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동안 수료생에 준하여 교내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등록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희망자는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존 우리학교 졸업 유예 제도는 ‘수료’와 ‘졸업유예’ 두 가지 학적 상태로만 구분됐다. 학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졸업 기준 학점을 모두 이수했으나 졸업논문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 ‘수료’로, 졸업 기준 학점과 논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졸업유예’로 판정된다. 두 제도 모두 졸업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의 경우 일정 기간 졸업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졸업 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우리학교 학생들은 학적 상태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해 제57대 정경대학 학생회 ‘더나은’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이전부터 고려를 해왔던 학사지원팀과 의견이 맞아 도입에 성공했다. 정경대학 신하균(사회학 2023) 전 학생회장은 “타 학교와 달리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스스로 학적 상태를 정할 수 없어 편법으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 불편했다”며 “부득이하게 강제졸

졸업유예, 수료,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비교표

구분	졸업요건		수강여부 (졸업논문)	학적
	이수학점	졸업논문		
졸업유예	충족		가능	재학생
수료	충족	미충족	가능	수료생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	수강	충족	불가능	학사학위 취득 유예생
	미수강			

업 당하는 학생들의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학사지원팀은 “어려운 취업 환경 속에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며 “이전처럼 일부러 졸업유예를 위해 일부러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가 도입되면서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재학연한 제도 또한 새롭게 마련됐다. 재학연한이란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재학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의미하며, 우리학교는 수업연한(4년제 대학기준)의 2배인 8년이다.

이 가운데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 제도는 8년보다 짧은 기간인 최대 2년의 기간이 적용되고 ‘졸업유예’는 8년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수료’는 별도의 연한 제한이 없다. 재학연한 제도는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기존 수료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학사지원팀은 “학생들의 대체적인 취업공백 기간과 타 학교 사

례를 종합해 고려한 결과 2년이라는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청년층의 ‘취업한파’가 지속되며 졸업유예생의 수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요 사립대학교 6곳과 지방거점 국립대 9곳의 졸업 유예생은 최근 3년간 6215명에서 9857명으로 약 59% 상승했다. 우리학교 또한 최근 5년 동안 졸업생 대비 졸업유예생 비율이 8.7% 상승했다.

올해 4학년이 된 이서진(물리학 2022) 씨는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가 도입되면서 인턴이나 현장실습 같은 기회가 다양해진 것 같다”며 “취업 준비 과정에서도 공백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심적 여유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서울캠 미래인재센터는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연이은 경기 침체로 고용 시장이 악화되며 졸업유예생 수는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사취득유예제도는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